



• 2018. 10. 14. 설교  
• 설교 | 이 규 현 담임목사

## 마음을 새롭게

로마서 12장 1-2절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관계의 고통은 왜 오는지, 멋진 계획과 현실은 왜 전혀 다른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 들여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터가 많이 있지만, 최고의 격전지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 마음을 공격할까요? 삶의 중심부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접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예배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순응이 아닌 불순응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자로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삶의 변화는 마**

**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형을 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죄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은 곳이 마음입니다. 타락이란 외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하지만 늘 똑같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법과 제도를 이용합니다. 교육을 강화한다고 달라질까요?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죄를 짓고,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지능적 범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나쁜 것을 보고 게임에 빠지면 부모들은 속이 상합니다. 휴대폰을 뺏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지만 실패합니다. 부모가 말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인터넷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에 노출된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몸이 하드웨어라면 마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에 관심이 많아 종합검진도 자주 받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아져 수명도 늘어났는데 마음은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병들고 깨어졌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급증하고 우울증은 유행병과 같이 퍼졌습니다. 최근에는 소아 우울증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몸의 병을 고쳐도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인들에게 만연한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이미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육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종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줄곧 마음에 주목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8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15:18-19)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지켜야 할 것 중의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싸움의 최전선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고 고통하고 실패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추는 허리나 심장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쓰레기통을 치운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삶이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 사건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

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용된 “변화”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13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17:1-2)에서는 주님이 변형되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변형”은 로마서의 “변화를 받아”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됩니다.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서 변형은 근원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외적인 상태가 조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 내면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근본적 변화입니다. 나무 의자를 나무 탁자로 바꾸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 변화, 본질적 변화, 내면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일으키는 변화는 기적이고 기적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봉사를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변화, 혁명적 변화, 마음의 혁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 변화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 성경이 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마음이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

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고 그 자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무엇이 작동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변화에 대한 전조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보다 변질이 더 쉽습니다. 물론 꺾데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꺾데기를 바꾸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요란한 종교적 열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 없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얼마 가지 못해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종교놀음이었습니.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적인 행동과 달리 그들의 마음은 심각할 정도로 더러워져 있었습니. 규례를 따라 열심히 손은 씻었지만 마음은 더러워져 있었습니.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 내적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에 만족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입니. 생각보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부가 왜 원수처럼 싸울까요? 일평생 함께 살면서도 상대편 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 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할까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 내 모습은

잘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이 눈에 잘 띄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 변화해야 할 사람이 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근본적 변화로 이 근본적인 변화란 마음의 변화입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독특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쳤다가나 개조했다는 것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변화,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과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1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색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색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롬1:21-24)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한마디로 구제불능입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 이것은 인간의 현주소입니.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니까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나 기괴한 동물과 같이 변하고 만 것입니다. 정욕 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핵심입니.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워드이고 모든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입니. 모든 비극과 고통의 출발점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때 문입니.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불행은 엄청납니. 모든 악한 것들을 막을 길이 없

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진공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창조의 법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반대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기 송배로 갑니다. 스스로를 섬기고 자기 배가 신이 됩니다. 십계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 2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1, 2계명을 어긴다면 다른 계명을 다 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의 타락상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저급해집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포장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생각이 허망함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살려고 할수록 고통을 불러옵니다. 악은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인간의 삶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변화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쌓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의를 내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서 우리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입니다. 여기에서 "내 안"은 어디일까요? "내 마음 안"입니다. 나와 주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데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나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각각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 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말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라고 하고,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접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서 맺혀질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외적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28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별다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입니다. 변화된 삶은 그 자체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음수련 프로그램이나 영성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극기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충만을 얘기하면 뭔가 외적인 행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없이 외적인 능력만 주어진다면 위험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사고를 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 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껍데기에 열을 올립니다. 겉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서 새로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친다고 고쳐질까요? 이제 그 헛수고의 반복을 멈추어야 합니다. 진리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거짓된 것들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

다. “내 안”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마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삶이 실패하고 이전처럼 되돌아가는 것 같을 때 인간적 노력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데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로 모셔 들일 때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분노, 스트레스, 실패, 온갖 욕망으로 인해 들려오던 잡다한 소리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마음이 지옥이 될 리 없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강을 유지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사랑원들을 환영

####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나눔

#### • 사랑방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 • 사역내용을 가지고 기도 후 마무리

여는말  
ICE BREAKING

최근 사용하던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큰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왜 그런지 나누어 봅시다.

• 감사함으로 찬양 | 42 항상 진실케 108 나의 마음을 정금과 241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 찬송가 |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195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눔1.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 드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불순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눔2.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본질적인 변화의 핵심은 곧 '무엇'의 변화입니까?

나눔3.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과거 우리의 마음은 이상숭배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복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눔4.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눔5. 마음에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① 수영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총만하고 강건케 하소서
- ② 사랑방전도축제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종교개혁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안에 진정한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 ③ 2019년 제자·사역훈련생 모집에 부름 받은 성도들이 결단하며 나오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 영상을 수영로교회 앱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예배와 찬양] 앱 → 수영로소식 → 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